

페트로브라스의 에탄올 및 석유 등 자원개발 동향

□ '08년 에탄올 수출량, 전년대비 600% 증가한 6억 500만 리터 기록

- 브라질 국영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'08년 에탄올 수출량이 전년대비 600% 증가한 6억 500만 리터에 달할 전망이다이라고 발표
 -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바이오 에너지 소비 확대 추세가 에탄올 수출량 확대로 연결된 것으로 페트로브라스는 전체 수출량의 80%인 5억 500만 리터를 미국으로, 1억 리터가 일본을 수출
 - 현재 브라질의 전체 에탄올 수출량은 약 42억 리터로 추정되고 있으며, 페트로브라스의 수출량은 전체의 약 15%를 차지
 -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세계 2위이며, 수출은 세계 1위로 지난해 에탄올 수출량은 32억 리터 수준
- * 미국 앞 20억 리터, EU 앞 10억 리터 수출

□ 바이오 디젤의 대량생산 계획 추진중

- 지난 7월 및 8월에 페트로브라스의 자회사인 "페트로브라스 바이오에너지"사는 연간 5,700만 리터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 2개를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 및 세아라주에 기 건설
- 이와 더불어, 3번째 바이오 디젤 공장을 중동부 지역인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추가로 건설할 예정으로, 3개 공장에서의 바이오 디젤 연간 생산량은 약 1억 7,000만 리터에 달할 예정
- * 브라질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약 30억 리터로 평가

□ 에스피리토 산토주 해안, 매장량이 약 15억~20억 배럴 추정 유전 추가 발견

- Petrobras는 최근 에스피리토 산토주 해안에 위치한 Parque das Baleia 지역에서 매장량이 약 15억~20억 배럴로 추정되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
- 이번에 발견된 유전은 'Pré-Sal'로 불리는 심해 염전층 하부에 위치한 유전으로, 브라질 최대 유전인 Tupi 유전과 함께 'Pré-Sal' 유전의 잠재력을 다시 한 번 입증
- Pré-Sal 유전지대의 북쪽 상단 에스피리토 산토 주 해안에 위치한 Parque das Baleias 유전은 같은 Pre-Sal 유전이지만 유전까지의 깊이가 200m 밖에 안돼, 깊이 2000m에 이르는 산토스 유전보다 훨씬 개발하기 쉬운 것으로 평가
- 처음 Tupi 유전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Pre-sal 유전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만 걸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, 최근 Bacia do Esperito Santo 지역에서도 유전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, 일부에서는 Pré-Sal 유전층이 Espirito Santo 주에서 Santa Catarina 주까지 약 800km에 걸친 거대한 유전 벨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



- 현재까지 탐사를 마쳐 확인된 브라질 전체 석유 매장량은 140억 배럴 안팎이며, Pré-Sal 염전층 추정 매장량은 약 95억~140억 배럴 이 될 것으로 추정
- 만약 Pré-Sal 유전 전체 매장량이 140억으로 확인될 경우, 브라질 석유 매장량은 현재의 2배에 이르는 280억 배럴 안팎에 달할 예정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